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5일(금)

---(음력 5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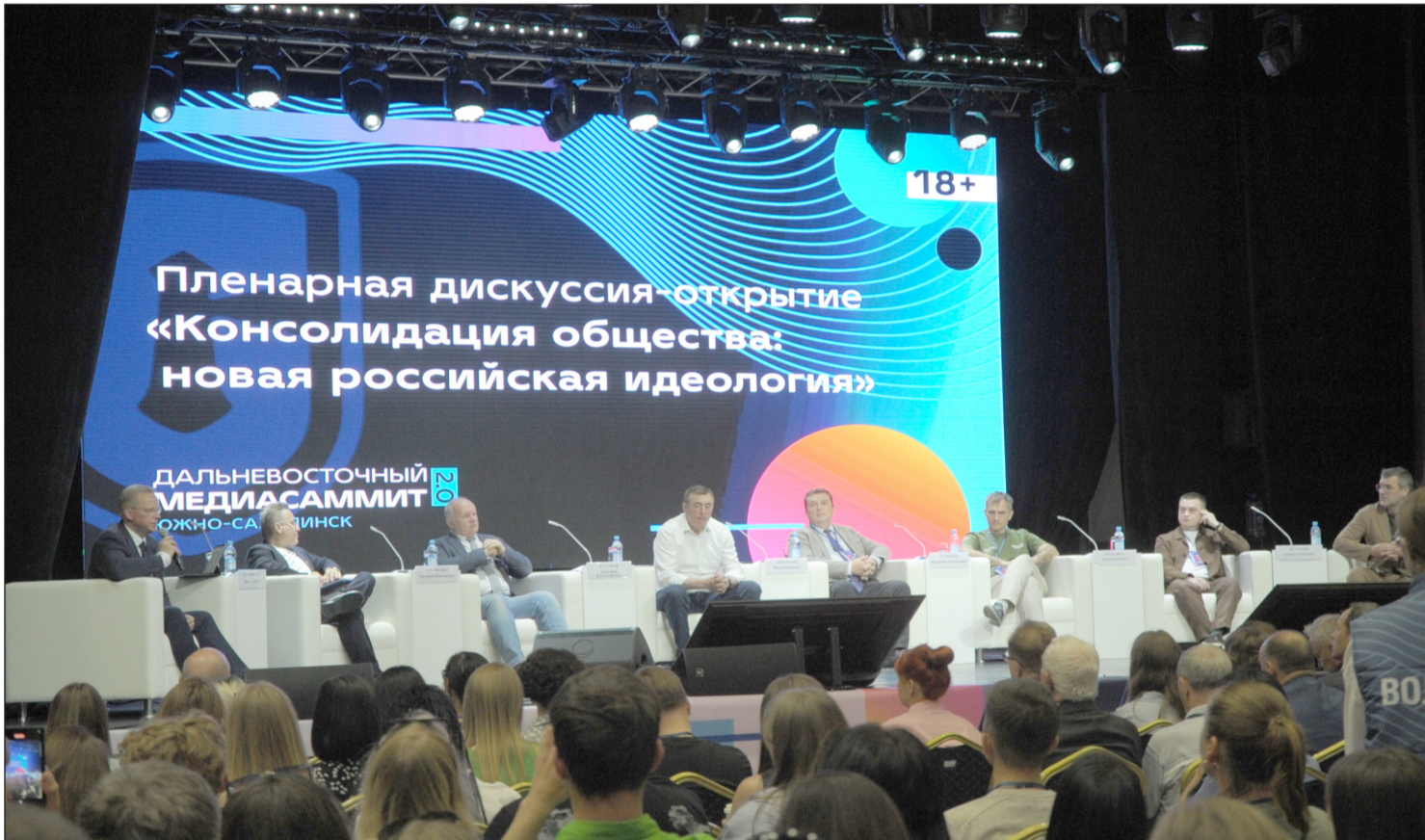
Пятница

5 июля 2024 г.

№ 26 (1209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에서 7월 4일-5일 이틀간 '극동 미디어삼미트 2.0(극동 대중매체 대표자회담)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사회 통합: 새로운 러시아 이데올로기)라는 전체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관련 기사 2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대형 관광회사, 사업차 쿠릴 방문

러시아 동부개발과 극동 및 북극개발 공사가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으로 극동연방관광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재 겸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의 지시로 쿠나쉬르섬에 대한 사업-사절을 시작했다. 2024년 7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 7개의 러시아 대기업과 관광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참석했다.

방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8개의 투자 현장을 살피고, 이곳에 호텔-유락 단지과 글램핑 단지 건설에 따른 기획 실행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기업들은 사업 시행을 위한 편안한 조건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는 쿠릴 열도에서 적용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리한 특혜제도, 투자자들에게 주요 세금들 20년간 면제, 특혜로 토지 확보의 기회, '쿠릴리' 선도개발구역에서 제반시설을 구축해 기획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사절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쿠나쉬르섬의 호텔 단지, 생선가공공장, 양식장 조성에 대한 성공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7월 8일 가족과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 가정의 가치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맞이합니다.

첫걸음의 순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며, 아주 어린시절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화와 자장가는 우리만의 문화를 알려주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신뢰와 어른과 아이 사이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받으며 경험합니다.

바로 가정은 우리 각자를 형성합니다. 가정은 러시아의 힘의 근원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사할린 지역에서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배려와 관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역 모성기금부터 시작해 주택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교양있는 청년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사할린주에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과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아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가정의 행복과 번영과 화목함과 평안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주 정부

쉬코탄섬의 '오스트로브노이' 해산물 가공공장, 일자리 창출 2배 늘어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7월 2일-3일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을 방문 중에 이곳 '오스트로브노이' 해산물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쉬코탄섬의 말로쿠릴스스코에 마을에 자리잡은 공장에는 1천 명 이상 일하고 있고, 생선통조림공장이 가동되면 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된다. 해산물 가공공장은 자체 어획조업 선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 해삼, 가리비, 대합을 채취하기 위한 소형 선박들을 포함해 2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용량 해산물 가공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는 2개의 생선가공공장에서는 하루에 120톤과 350톤의 가공된 생선이 생산되고 있다.

'오스트로브노이'해산물 가공공장의 대표이사 대행 세르게이 수하노브는 "생선의 기름 생산은 3단계를 거치는데 기계용 기름에서부터 식용 기름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는 순수 식용유를 출시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생선 추출물로 만든 어묵 단백질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바다 콜라겐과 같은 대중성이 있는 식품 생산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일 400톤의 생선 가공품을 생산할 생선가공공장을 하나 더 건설 중에 있다. 생선통조림공장은 이미 건설되어 현재 내부 장비 설치 및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1일 2백만 개의 생선통조림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생산제품 5천 톤을 수용할 현대적인 냉장고가 도입되었고, 이 기업은 대규모 낚시를 위한 부두를 건설하고, 말로쿠릴스카야만의 전체 돌레를 따라 방파벽을 설치했다.

"우리는 준설작업을 하고, 첫 단계로 200대의 컨테이너를 수용하고, 향후 천연가스를 섬에 공급하기 위한 LNG컨테이너를 수용할 계획으로 폐쇄식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미 이곳에 장비들과 건설자재가 확보되었다. 물류센터가 우리에게도 아주 부족하다. 화물을 하역하고 급히 운송하기 위한 대량의 화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일을 시작할 터미널은 사할린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오스트로브노이' 기업 대표가 덧붙였다.

생선가공공장은 막대한 자원들을 쉬코탄섬의 사회적 제반시설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은 자체 건설회사인 '쿠릴스키에 오스트로와(쿠릴 열도)'를 갖추고 있어 이 업체를 통해 대규모 다양한 상품들을 갖춘 슈퍼마켓이 건설되고 있으며, 매장에는 지역 생산의 제빵과 냉장 해산물, 신선한 생선 냉동식품을 비롯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진열되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업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이 사람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공동으로 주택 건설프로그램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들의 이주를 도우며, 필수 직종의 직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혜택의 일환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다. 곧 우리에게 일자리 수가 약 2배로 늘어나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올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생활여건이 필요하다. 주택 건설용 토지는 우리가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생선가공공장의 건설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과 자가주택 마을,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해 피자집, 약국, 성전을 건설해왔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이들간 사할린에서 대규모 '극동 미디어 summit'대회 개최

사할린 한민족지 새고려신문에 관심을 보여

사할린에서 7월 4일-5일 이틀간 '극동 미디어summit 2.0(극동 대중매체 대표자회담)대회가 개최된다.

2014년부터 해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언론인, 블로거, 홍보실 직원, 사회활동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처음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중매체 대표자회담에 1,028명이 참가신청을 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사할린 '대중매체 대표자회담 2.0'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디어, 정부 및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의 소통을 통합하여 러시아 극동개발의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포럼에는 러시아 연방 극동연방관구 전권 부대표 그리고리 쿠라노보, 비영리기관 '지역 소통'의 키릴 이스토민 제1 부대표, 러시아 기자동맹 블라디미르 솔로비요브 회장 등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공식 개막에 앞서 지난 4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의 콩그레스홀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사할린섬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사할린 섬의 발전 전망과 현재 성공적 기획들에 대해 발표하고, 많은 질문에 답변을 했다.

'대중매체 대표자회담'은 <사회 통합: 새로운 러시아 이데올로기>라는 전체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극동 지역의 가치와 교육의 주제, 현대 세계 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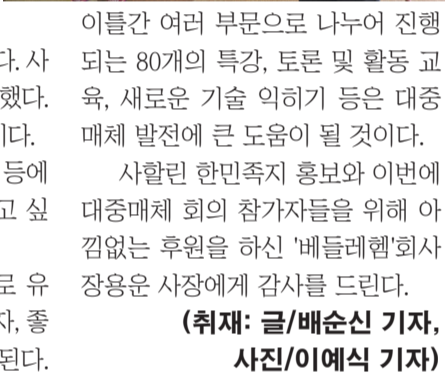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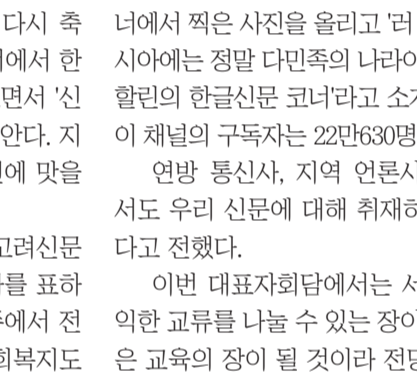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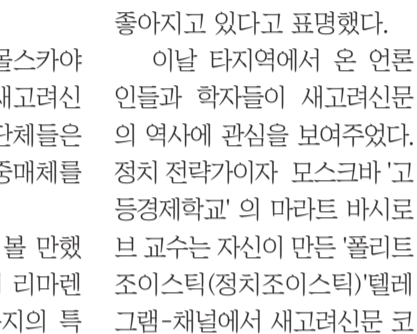
가치-의미론적 기반, 루소 포비아(러시아 혐오) 극복의 원인과 방법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대회는 사할린주 정부, 러시아 기자동맹 프리모리에 및 사할린 지부, 사할린주 청년청, 인적자원 개발공사, 프리마미디어 회사가 주최하고 '루스기드로' 회사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정보 협찬으로는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티' 미디어홀딩, '소베츠키 사할린' 신문사,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아에스테웨'방송국, '탐 라디오'방송국, '콤포스카야 프라우다'(사할린 지부)와 새고려신문사가 나섰다. 정보 협력단체들은 설치된 스탠드에서 자체 대중매체를 홍보할 수 있었다.

새고려신문사의 코너가 볼 만했다. 전시장을 둘러본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일한 한민족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75주년을 다시 축하했다. 그리고 신문사 코너에서 한민족의 떡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선한 것 같다. 나도 이 맛을 안다. 지금 발언장에 가야 하니 이번에 맛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배 워토리아 사장은 새고려신문에 대한 배려와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사할린 한인들이 현재 주에서 전보다 살기 편리해졌고, 사회복지도



좋아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날 타지역에서 온 언론인들과 학생들이 새고려신문의 역사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치 전략가이자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의 마라트 바시로브 교수는 자신이 만든 '폴리트조이стик(정치조이стик)'텔레그램-채널에서 새고려신문 코너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러시아에는 정말 다민족의 나라이다. 사할린의 한글신문 코너'라고 소개했다. 이 채널의 구독자는 22만630명이다. 연방 통신사, 지역 언론사 등에서도 우리 신문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대표자회담에서는 서로 유익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장이자,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사할린,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 바다의 정령을 달래다

포르노이스크에서 사할린의 북방원주민들이 참가하는 <바다의 주인인 정령들을 위한 고사 지내기> 민속 고사 지내기가 진행된다고 '포르노이스크 뉴스'신문이 전했다. 32번째 북방소수민족원주민 대표들이 페르페니야만 해변에 모여 바다 정령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그들의 민속신앙에 따르면 이는 여름 성어기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에게 감사하며, 자연적 재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예식이다. 이 고사 예식은 7월 5일과 6일에 진행된다.

"올해는 오하, 노글리키, 티콥스코예, 스미르니흐,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등 7개 지방팀이 참가하며, 해안가에는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의 음식과 생활양식과 풍습을 전시하는 민속마을이 건설된다."고 전해졌다.

또한 전통 경기도 진행하여 7개 지역의 팀들은 나룻배로 바다에 나가기(악천후 속 줄다리기), 민속씨름, 민속음식 경연, 우수 미니주택 짓기 경연, 수공예장식품 경연, 썰매 뛰어넘기, 양궁 등 경기에서 우승을 위해 경쟁한다.

기념식 중에 <손님맞이 '집안의 가보' 북방소수민족원주민의 전통적인 가치관> 새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고사예식의 방문객들은 활동교실을 통해 북방소수민족원주민 대표들에게서 그들 문화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중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도 선사하며, 모든 방문객들은 송어로 만든 신선한 생선수프도 맛볼 수 있다

이 모 저 모

제 76회 필하모닉 시즌 마무리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념 공연 개최

6월 3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필하모닉 76주년 마무리 콘서트가 열린 가운데 무대에 사할린의 작곡가들과 예술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필하모닉의 76주년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공연의 관객들을 환영하고, 사할린 필하모닉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 필하모닉 76주년 공연은 필하모닉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었다. 그간 필하모닉은 음악인들과 예술가들, 필하모닉의 무용수들이 참여하는 총 300개 이상의 행사들을 열었다. 올해는 70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성한 가운데 팝스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재즈도 생겼다. 2023년-2024년 사할린 필하모닉 총공연 시즌에 14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올해는 체호브센터와 공동으로 오페라 '차르다시 공작 부인'과 사할린 작가이자 작곡가인 게오르기 조보브의 작품을 주제로 한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뮤지컬을 공연했다. 이 공연은 사할린의 뮤지컬 극장 설립을 향한 첫걸음을 단게 했다.

이외에도 사할린 필하모닉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 러시아 전시-박람회장의 '러시아' 국제전람회에 참가해 재즈축제와 '우리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애국노래축제에서 공연을 했으며, '다르(재능)'아동창작노래경연과 청년재능지원으로 '포다록(록 음악 재능)' 기획을 진행했다.

또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 전 지역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의 순회공연이 조성되었다. 2024년에 필하모닉은 사할린과 쿠릴의 18개 지역들을 방문해 연주했다. 오케스트라단의 교육은 라리사 돌리나의 음악아카데미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2024 - 아르히펠락>포럼과 <오스트로와> 포럼 개막식, 고대하고 있는 <사할린의 날개>음악축제 및 에어쇼를 위한 서커스쇼 <우리는 태양을 깨운다>를 필하모닉은 준비하고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필하모닉을 위한 자체

건물 건설 계획도 진행 중이다.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76-го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30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76-го сез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о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главные композиции островных авторов и артистов.

По случаю окончания 76-го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всех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лле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за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76-й сезон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тал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учреждения. Всег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300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узыканты, артисты и танцоры филармонии. В этом году филармония организовала более 70 новых программ, появились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ы. Всего в сезоне 2023-2024 концер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сетили свыше 1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совместно с Чехов-центром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Княгиня Чардаша» и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Нет ничего дороже» по мотивам твор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автора и композитора Георгия Зобова. События послужили первым шагом к созданию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на островах.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на ВДНХ в Москве, представила джазовый фестиваль и фестиваль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Также прошли конкурсы детской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ДАР» и проект «поДАРоК» в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рганизованы гастроли коллективов филармонии во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 2024 году артисты посетили все 18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одолжается также обучение артистов в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циркового шоу «Мы пробуждаем солнце», к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форума «Архипелаг — 2024»,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и долгожданному фестивалю музыки и авиаци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Идет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бственного здания филарм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사할린에서 <창작의 토요일> 가정축제 진행

가족, 사랑, 충실의 날을 맞아 7월 6일(토) 제 2회 가정축제 <창작의 토요일>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초대한다고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측이 전했다. 행사는 주 미술박물관과 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체호브소공원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아동들을 위한 상호작용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사할린 화가들의 미술 전시회도 볼 수 있으며, 온 가족을 위한 메가-게임을 즐기고, 창작 활동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지역 가수들의 음악 공연과 샤프테르부르크의 <러시아의 종교지도> 전시회 관람, 사할린 장인들의 수공예 장식품 박람회, 제 3회 사할린 역사기록물 영상축제의 영화 상영이 준비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сем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ая суббота»

6 ию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на II сем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ая суббота»,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Дню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раздник пройдет в скве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Гости торжества с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интерактивных площадках для детей, увиде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ыграть в мега-игры для всей семьи, посетить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подготовили музык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мест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экскурсии по выставке «Религиозная карта России»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ярмарку-продажу изделий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и показ фильмов III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рхивных кинодокументов.

러시아 고전문화를 주제로 한 마라톤, 사할린 주민들 초대

6월 6일,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탄생을 맞아 러시아 문화부와 안텍스(Яндекс)가 <학생들을 위한 문화>부서 간 기획의 일환으로 정기(문화 마라톤)를 시작했다. (8면에 계속)

하바롭스크, "러시아 극동의 정교회와 고려인" 컨퍼런스 개최

6월 20일(목)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로 고려인 자발적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 극동에서의 정교회와 고려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는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단체연합회와 하바롭스크의 정교회의 신학교가 주최했다.

컨퍼런스는 하바롭스크 및 프리야무리예 아르테미 메트로폴리탄(대주교)의 환영사(니콜라이 수도사 대독), 하바롭스크 제니스 미트로파노브 부시장, 슬라브-고려인 정교회 대표 알렉산드르 손 신부, 러시아 민족협회의 알렉산드르 다르코비치 사무총장, 극동·시베리아 고려인단체연합회 백규성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모든 연사들은 이러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다르코비치는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가 러시아의 이주 역사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행사라고 언급했다(첫 번째 행사는 러시아 독일인을 주제로 한 행사였다).

러시아 사회원의 민족 간, 종교 간 관계 및 이민 위원회 블라디미르 조린 위원장은 러시아 대통령 산하 민족 간 관계 위원회의 간부회, 러시아 사회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민족학 및 인류학 연구소를 대표하여 별도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또한 "국가-종교 관계와 러시아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 강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백규성 회장은 "우리 러시아 한인들은 모든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다른 문명 수준으로 나아가고, 다극화된 세계에서 현대적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국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고려인 민족 공동체의 정치 문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알마티, 비로비드잔, 치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구학자, 대학원생, 사회 활동가 총 12명이 발표했는데 이들은 고려인의 초기 러시아 사회 통합 경험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이 현대 이주 과정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사 중 한 분은 극동연방관구에는 현재 러시아에서 유일한 고려인 이주자 기념비가 유대인자치주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사회적 적응, 국가-종교 정책 등에서 정교회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할린 역사학자 진 울리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20세기 사할린 한인교 종교적 관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의 다른 고려인 공동체와 달리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교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특성이자 고국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이런 특성 속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사할린 한인들은 복음주의와 장로교 교회로 유입되었다고 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모든 보고가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대회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유익한 상호 협력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에서 청년의 날 기념

6월 29일(토) 전 러시아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2024년의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시공원에 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적으로 진행됐다.

매해 이 기념일은 새로이 변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올해 주최 측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을 위해 최대한 재미있고, 활동적인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행사의 주된 표어는 <우리는 청년이다. 미래는 우리 것이다!>로 학생, 대학생, 학부모들을 비롯해 연령층의 대표자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가족게임과 도전게임, 활동교실, 전시 및 판매, 공연, 자기 표출을 위한 구역 등이 조성되었다.

가가린 공원에 12개의 각 기념 행사장들에서는 매해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기 획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창의적인 행사 단지에서는 패션쇼와 사할린 지역 장인들의 전시-박람회, G42디제이(DJ)그룹과 '타브리야다' 예술단지

의 대표 인 니카 두빅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정의 해 기념의 일환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려 여기서 주민들은 '장애물 코스' 도전게임을 해보고,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었고, 스포츠 행사장들에서는 활동적인 휴식과 통합무술, 보드게임이 진행됐다. 또한 타타르스탄과 키르기스탄, 한국의 요리 활동교실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저녁에는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주에서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년들에게 시상하고, 무대에서는 사할린의 연맹 단체들이 자체 학생들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선물 추첨으로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행 무료 항공권까지도 받았으며, 이후 경기장에서는 화려한 저녁 공연이 펼쳐졌다.

(본사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뵘스마트 스테게드 / 김사인

다음 생은 노르웨이쯤에서 살겠네.

바다를 낀 베르겐의 한산한 길

인색한 별을 쬐며 나, 당년 마흔일고여덟 배불뚝이 요한센이고 싶네.

일찍 벗어진 머리에 큰 키를 하고

청어와 치즈 덩어리를 한 손에 들고

좁 좁, 어시장 냉동탑 그림자 더욱 길어질 때

늘어나 덜컥거리는 흰 구두를 끌며 걸으리.

브뤼겐 지나 어시장 옆 좌판에서

딸기와 버찌도 좀 사겠네

싱겁게 몇날씩 눈이 날리는 저녁.

성당 지나 시장 골목 입구도 좋고

오래된 다리 부근도 좋고

새벽 두시

숙소를 못 찾은 부랑자가 윗도리를 귀 끝까지 올리는 시간

다리 옆 둔덕을 타고 비틀비틀 강가로 내려가는 그 사내이겠네.

미끄러질 듯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지.

적막 속의 새로 두시

물결만 강둑에 끌려거리

취해 흔들거리며 오줌을 누는

나 요한센(아니면 켈라 유하르트도 괜찮은 이름)

오줌을 누며 잠시 막막한 느낌에 잠기리.

북쪽 산골의 늙은 부모와 엇나가기만 하는 작은아이 생각

진저리 치고 머리를 긁으며

다시 독 위로 올라서네.

자, 어디로 갈까.

뜨개질은 건성인 채 밖을 자주 내다보는,

눈발 속 키 큰 그림자를 보고

달려나오는 여자가 하나쯤 있어도 좋아.

'요한나!'

전쟁에서 살아온 제대군인처럼

내가 팔을 벌리겠지 술 냄새를 풍기며.

눈 덮인 내 등을 털며 맞아들이는

집이 하나

저쪽

노르웨이나 핀란드

아니면 그린란드쯤이라도.

"끝내주지요, 이 시.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말지요. 기껏 백 년 남짓.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게 아니라 너무 짧아요. 젊음은 '아뽀사' 이렇게 외치는 순간,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건, 풀어헤치지 못하고 얽히고 설친 욕망과 관계, 미련들 뿐. 이제 이런 걸 죄다 원점으로 되돌려 세울 수도 없다는 걸, 요거 하나만 깨우쳤네요. 김사인 시인의 시가 마법처럼 잠시나마 전혀 다른 또 다른 현실의 좌표로 안내합니다. 실로 경이로울 따름. 살다가 이런 시를 만나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행운을 나눕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2024년 연어 성어기 어획량, 사할린 3위 달성

사할린주가 2024년 성어기 연송어 잡이 어획량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7월 초까지 4,400톤의 태평양 연어가 잡혔다. 조업 속도는 지난해를 앞서지 못했지만 학자들은 날씨의 영향으로 연어의 유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갑차트카 변경의 어민들은 연어 2,540톤(58%)을 어획해 1위 차지, 하바롭스크 변경은 1,110톤(26%)을 어획해 2위 차지, 사할린주는 약 300톤(7%)을 어획해 3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졌다.

어민들이 많이 잡은 네르카(홍연어)의 어획량은 2,000톤(46%)에 달했고, 이어 송어의 어획량은 1,900톤(43%), 셋째로 연어의 어획량은 241톤(5.5%)에 달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Пробуждение силы-2024»

27 июня Молодёжный центр «Shinsedae» при поддержке бизнес-клуба Koguin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провел Форум «Пробуждение силы-2024», на который съехались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тана «SmartYouz».

В первый день в офи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координатор проекта KOICA по Аральскому морю Но Э Чж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ландшафтного искус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Татьяна Югай, профессор Каршинского инженер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Шухрат Мурадов.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K-pop Cover Dance «Eclipse», «STC», «W-gunshot», «Witches», «Apocalypse», «Shinsedance».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Счастливого плавания! Роман Владимира Кима (Енг Тхека) «Кимы» в книжном мор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радиция книжных ярмарок зародила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т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вся республика в едином порыве устремилась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качку, для чего нужны бы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грамо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А их не выучишь без книг. И в разоренной войной стране возникли сотни издательств, которые стали наводнять разнообразной продукцией книжные прилавки. Многие изменились с тех пор, но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книжных ярмарок осталась. Вот и в конце июня в огромном сеульском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COEX состоялась грандиозная трехднев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ярмарка книг.

Книги, тысячи книг... Так что сравнение с морем возникло не случайно. В этом книжном море бесконечным потоком снуют люди-челноки в поисках интересующейся литературы. А он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о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наука и техника, экономика, искусство,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правочные издания... Всего перечислить невозможно. И, конечно,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изда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В этом книжном море плывет одиноко и роман писател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ладимира Кима (Енг Тхека) «Кимы», которая увидела свет в середине июня. Новинка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стенде Ассоциаци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издательств. Единствен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книга, написанная самим коре сарам о нелегкой судьб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ровно 160 лет назад начали перебираться в Россию в поисках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Их история полна трудностей, лишений и мужества, им довело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20-го века, происходивших на одной шестой части планеты — в двух мировых войнах, революции, гражданской смут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м переселении. История коре сарам — одна из самых славных страниц истории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Затеряется ли роман-челнок в этом книжном море? Скорее всего, нет. Потому что любая интересная книга всегда находит своего читателя.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йчас в Южной Корее — небывалый всплеск интереса к коре сарам, чья трудная судьба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предков достойна и гордости, и восхищения. Так что пожелаем роману «Кимы» попутного ветра!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РК заверш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в СБ ООН

30 июня РК завершила работу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а основе ежемесячной рота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МИД, в июн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33 открытых и 11 закрытых заседаний Совбеза, приняты восемь резолюций. 20 июн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 Тхэ Ёля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 тему «Киберугрозы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 мире». Мероприятие данного формата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ось в очном режиме.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коло 70 стран-членов ООН. РК, которая в 2024-2025 годах является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беза ООН, будет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ть в нём в сентябре будущего года. (KBS World)

Рамён – основной экспортный продукт K-Food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ён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на зарубежных рынках на волне роста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K-Food). Как сообщили 3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рамён составил 59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32,3%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ежемесячный экспорт рамён составил почти 1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ста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за рубеж составил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 млрд 77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6,7%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экспорта являются США, Китай и Япония, а главными экспортными товарами, помимо рамён, являются женьшень, продукты из обработанного риса и квашеные овощи кимчи. (KBS World)

Находк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майора пограничных войск КГБ Сон Гав Гю

Сегодня в Находк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60-летия со дн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состоялась экскурсия к мемориальной доске участник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Сон Гав Гю Василия Семеновича. Ранее с инициативой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ую доску на ул. Пограничной, 24, где проживал советский разведчик, выступили городской



Совет ветеранов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корейцев г. Наход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лены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в г. Находке Александр Кузнецов, Юрий Притчин и Валерий Мелентьев, члены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г. Находки, клуба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а также родственники героя. О жизни и работе Сон Гав Гю рассказал ветеран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полковник Валерий Мелентьев, лично знавший героя. Также собравшихс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почетный член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Константин Миронович Ким: -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является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Сегодня наша задача –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наших предках. Зде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вои боевые задачи выполнял Сон Гав Гю Василий Семенович. Мы чтим память наших славных предков и приложим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тоже знали историю нашей Родины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Константи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им.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возложением цветов к мемориалу.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ходки)

Иногда вымыслы сбываются

В своей повести «Ушедшие вдаль»,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Ташкенте (1997) на русском и в Сеуле (2013),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я использовал свое право 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вымысел. Что мне, якобы, довелось исполнить задуманное – совершить путешествие дикарем по Южной Корее 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ом страны. Тогда и предполагать не мог, что не только мечты, н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вымыслы иногда могут сбываться.

Но начну по порядку.

Я приехал в Сеул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первой книги своего романа «Ким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го события я ждал двадцать лет. В столице РК меня приютил в своей квартире учитель танцев И Ген Чоль. Вот он-то и явился виновником того, что м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вымысел воплотился в жизнь.

Познакомились мы с ним в Ташкен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енью, куда он приехал обучать девочек ансамбля «Коре» танцевать (ни за что не догадаетесь) древний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с масками (тхаль чум). Меня попросили написать о нем, что я исполнил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поскольку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ся с нечто подобным. Тогда же узнал, что этот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был признан ЮНЕСКО нематери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достоянием человечества.

Сам Ген Чоль 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танцор, но его любви к этому танцу, мастерству мог бы позавидовать любой профессионал. Именно такие фанаты и сделали этот танец достоянием не только Кореи, но и всего мира.

В Сеуле он сразу превозносил меня везд, как великого писателя коре сарам, чем очень смущал мою неисключенную к медным трубам душу. Ген Чоля знают многие, за ним прицепилось удивительное прозвище, которое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означает – «Человек, умеющий веселить». Настоящ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еркиных, а они всегда были окружены любовью, уважением и авторитетом. Для них везде открыты двери, даже двери в кабинет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Так я попал на прием ко второму лицу руководства РК —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господину У Вон Сик.

Просторный кабинет, где все подчинено простой удобной красоте. На стенах никаких изысков, дорогих картин. И потому сразу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большой овальный барельеф Хом Бом До в до боли знакомой будёнковке и с суровым выражением лица. В Южной Корее его называют «дянгун», что означает «генерал». В конце приема хозяин кабинета четко обозначит свою связь с прославленным командиром-инсургентом, а пока



Писатель Владимир Ким (Енг Тхек),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У Вон Сик переводчица Сон Ын Джонг и достояние республики И Ген Чоль

Фото Павла КИМА.

он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ет гостя. То есть меня. А 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заявил, что представляю в своем лице корейскую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Узбекистана и от ее лица поздравляю господина У Вон Сика с избранием на высокий пост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Передаю привет от председателя АККЦУ Виктора Николаевича Пака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ластям Кореи за желание помочь в создании музея истории коре сарам Узбекистана. И здесь хозяин кабинета показал, что он в курсе темы, поскольку тут же пожелал, чтобы музей не ограничивался 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чтобы там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история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НГ.

Вкратце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тема коре сарам, работ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Спикер обещал осенью посетить Узбекистан и обсудить разные вопросы. И на прощанье заявил, что он тоже из племени коре сарам, потому что его дед Ким Хан жил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заторов. И в числе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ыл репрессирован сталинским режимом. У Вон Сик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Хом Бом До. И стало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в его кабинете висит портрет народного генерала.

На прощанье я решил подарить ему свою книгу. Он посмотрел на два толстых тома романа и выдохнул – постарайтесь прочитать.

Я счастли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вымыслы, оказывается, имеют свойство иногда сбываться...

Владимир Ким (Енг Тхек)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НДР сообщила об испытаниях нов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1 июл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испытания новой такт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Hwasong-11Da-4.5, способной нести сверхбольшую боеголовку массой 4,5 тонны. Испытательные стрельбы проводились с имитацией тяжёлой боеголовки для проверки устойчивости полёта и точности попадания на дальность от 90 до 500 километр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ещё одно испытание ракеты для проверки лёт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точности попадания и мощности взрыва сверхкрупной боеголовки на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250 километров,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ак сообщили ранее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тром 1 июл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дв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дна из них пролетела около 600 километров и упала в Восточное море, а вторая пролетела около 120 километров и взорвалась в воздухе. Сверхбольшая боеголовка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распорядился разработать, выступая в 2021 году на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РК создаё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населения

До конца июля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займётся решением острых и трудно решаемых пробле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быстрого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аны после сери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Сила народа. Нов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также вопросами обеспечения страны рабочей силой и миграции. Оно возьмёт на себя разработку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средне- и долгосрочных стратегий,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ш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на борьбу с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сред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едомств,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анализ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данных. Министр по вопросам населения буд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и вице-премьера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Профессора-мед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объявят бессрочную забастовку

Профессора-медики, работающие в трёх больницах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проведут бессрочную добровольную забастовку с требованием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тменить планируемую медицинскую реформ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чрезвычайном стачечном комитете, забастовка начнётся 12 июля, но она не затронет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и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стремилось к диалогу, предлагая решения и компромиссы, 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гнорировало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комитета. Оно было сдела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фессоры-медики из больницы Северанс начали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ть лечение амбулаторных пациентов и отменять неэкстренные операци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аналогичные действия, начиная с 4 июля, предпримут профессора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Асан. Несмотря на сопроти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врач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очти на 1.500 человек.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б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меры охраны тру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объяв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охраны труд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на аккумуляторном заводе компании Agicell в Хвас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гибли 23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18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сообщили 1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ичин пожар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многие рабочие,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завод рекру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ей, никогда не проходили обучения по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 целью снижения риска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регулярные проверки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которых заня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х руководство обяжут усилить меры охраны труда и проводить обучение рабочих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Чин из BTS понесёт огонь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Чин из BTS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эстафете огня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ариже. Детали участия певца в эстафете не сообщаются. Неизвестна и причина его приглашения в Париж, но она, вероятно, связана с глобаль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BTS. 31-летний Чин стал первым из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BTS,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 службу в армии и вернулся к музык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он появится в телешоу Good Rest на канале MBC и выпустит новый сингл.

Корейцы массово поддерживают импичмент Юн Сок Ёлю. Каковы шансы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остаться у власти

Петиция за импичмент Юн Сок Ёлю набрала более 1 млн подписей

Всего лишь за две недели количество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али петицию за досрочную отставку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человек.

Численность сторонников импичмента лидеру страны оказалась такой большой, что с потоком обращений не стал справляться сервер электронной доски объявлений, где размещена петиция. Запрос уже передан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му комитету парламента, после чего он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удет дать официальный ответ.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вряд ли дело дойдет до реальной отставки президента, но все это хорошо показывает низ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Юна в народе.

Впервые петиция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править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в отставку появилась в разделе "Народные запросы" на сайте парламента РК еще две недели назад - 16 июня. Вообще в этом разделе ежедневно появляется много разного рода запросов и предложений, но именно этот призыв вызвал необычайно бурную реакцию и отклик у корейцев. По данным на 3 июля, ее поддержали уже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и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оянно расти.

По мнению инициаторов пети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бвиняют в нарушении сразу пяти законов, включая нежелание инициир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гибели бойц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а также по поводу получения женой Юна дорогой сумочки.

Согласно местным законам, если подобная петиция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после размещения на сайте соберет более 50 тысяч онлайн-подписей, то она передае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 прим. "РГ") РК.

Очевидно, что данное условие уже давно с лихвой перевыполнено, потому комитет начал рассмотрение запроса по существу. Теперь эксперты должны опреде-

лить, насколько содержание запроса имеет под собой основания. Если народные требования будут признаны обоснованными, то запрос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уже на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а затем отправл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вета.

Как отмечают политологи, в реальности немного шансов на то, что только эта петиция заставит Юн Сок Ёля досрочно сложить полномочия. Вместе с тем, сам факт той широкой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ую она получила и продолжает получать от рядовых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как самому президенту, так и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интересы которого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и, которые, к слову, контролируют парламента, уже использовали этот повод, чтобы снова обрушиться с критикой на нынешню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Один из видных политиков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он Чхон Нэ отметил, что если петицию оставить на сайте, то она "получит и два, и три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и куда больше". Его коллега депутат Со Ён Гё добавил, что все эт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асколько велик гнев народа" в отношении действий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обвиняют оппозицию в популизме и попытке раздуть шумиху. Между тем даже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о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кругов усилилась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доминирующих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настроений. Если так все пойдет и дальше, то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7 г.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будет трудно надеяться на победу. Такж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и же тенденции хорошо были видны 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стоявшихся 10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торой раз подряд оппозиция в лице партии "Тобуро" очень уверенно победила и упрочила свои позиции, обеспечив себе уверен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манда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обещают начать платить парам, которые решат встречаться

На необычную и даже в чем-то отчаянную меру решились власти одного из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круг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егаполиса Пусан в борьбе с рекордно низк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рождаемос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ообещал выплатить весьма солидную сумму тем мужчинам и женщинам, которые по итогам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октябрь мероприятия знакомств, начнут встречаться. Если же дело дойдет до свадьбы, то власти готовы раскошелиться еще больше. Интересно, что эти меры по финансовому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роман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не только для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но и иностранцев.

Инициатором подобной акции стала Упра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аха города Пусан. Как заяв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н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специальную статью бюджета на "свидания вслепую",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в сентябре. Если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мужчина и женщина решат хотя бы начать постоянно встречаться, то Управа пообещала выделить такой паре по одному миллиону вон (ок. 720 долларов) на расходы для свиданий. Если же дело дойдет до знакомства родителей обеих сторон, то обещана более крупная "премия" - 2 млн. вон, ну а если все закончится "хэлпи-эндом", то есть созданием семьи путем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то Управа округа Саха выделит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ли более 14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власти обещают оплачивать и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по аренде жилья для таких молодых семей.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ы, но и граждане других стран, правда одна из сторон в новой пар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емии должна все же быть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Скепт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вся эта схема провоцирует разного рода корыстные уловки: например уже встречающиеся молодые люди ради получения денег могут имитировать "случайное знакомств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либо кто-то может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м пол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дзаработать". Тем не менее, об акции уже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ено, хотя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некотор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озможно участие мужчинам и женщинам в возрасте от 23 до 43 лет, они при этом должны жить, либо работать в округе Саха Пусана.

На такой нестандартный шаг власти Пусана толкнула уже давняя и крайне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дряд Юж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на самом последнем месте среди государств планеты по рождаемости. Эксперты прочат серьез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оциальные и даж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если корейцы не начнут заводить больше детей, меры принимались самые разные, но пока не смогли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Недавно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 как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ое", сравнив ег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ей". Было также обещано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оторое займется решением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Правда специалисты считают, что дело уже зашло слишком далеко, 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ад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уменьш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ет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мае РК посетили 1,42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РК посетили 1 млн 42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это на 63,6%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ма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95%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туристов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395 тысяч, за ним следуют 278 тысяч из Японии, 123 тысячи из

США и 117 тысяч с Тайваня. За первые пя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К посетили 6 млн 28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на 81,1%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жду тем, в мае за границу выехали 27 миллионов южнокорейцев, что на 34,8% больше, чем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94%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KBS World)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аСаммита о мосте Сахалин – материк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аСаммита 2.0. Губернатор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езентовал успешные прак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фере управления.

Реда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подняла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оста Сахалин – материк.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ветил однозначно: мост нужен.

– Если будет мост, он выйдет сразу на четыре незамерзающих порта, два из которых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станут глубоководными. Туда смогут заходить океанские лайнеры. Мы взяли курс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нефти и газа, то есть появляется грузовая база. Это то, чего раньше не хватало.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же публично заявил, что этим вопросом необходимо заниматься. Я недавно встреча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италием Савельевым.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пора переходить к стадии обосн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й и посчитать,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Часть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будет сделана бизнесом, часть – государством. И эта работа уже развернута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урналист из Уссурийска спросил, по каким критериям губернатор выбирает людей себе в команду.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вал три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 которыми должны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забота о людях, нацеленность на результат и умение разбираться в деталях.

Работ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том, чтобы укреплять доверие общества к власти, обеспечива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и гармон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выша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внедря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актики и технологии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ве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к лидерству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В основе лежат единые подходы и инструменты – ипроек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бережли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Эти практ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перенимают управленцы из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800 показателей параметров. Среди них –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талонов к врачам, потребность в билетах на самолет и други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числ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и других показател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Такой ежедне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и управлять рисками.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можно следить и за реализацией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оритет отдается нефтегазовому,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му,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секторам. Больш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авиац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беспилотная.

Один из военкоров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не боится 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чинать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в такое неспокойное время.

– Нет,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 Когда ушли Эксон и Шелл, мы должны были остановить добычу, но мы преодолели этот барьер. Инвестици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растут каждый год. Причем три четверти из них – в несырьевом секторе. Когда России трудно, она собирается, сплочается, и даже санкции становятся точкой развития. Это не надо объяснять. Наша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вается и становится только крепче.

Напомним, в 4-5 ию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аСаммит 2.0. Это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СМИ, PR и блогосферы,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4 года.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сс-медиа все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рубежных СМИ, федер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России.

На аэродроме «Менделеево» обновят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На аэродроме «Менделеево»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ъекта. В рамках модернизац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замена аэродромных плит,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ка новой системы светосиг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радиолокаци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се э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Кунашире.

–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региона – одна из наших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Мы построили и открыли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аэропор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араллельно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этому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ажно завершить в срок, без промедлений, – отметил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эродром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меет двухкилометровую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покрытием и перрон на два места стоянки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есть светосигн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днако его замена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видимость при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а значит частоту полетов. Заменить действующ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лан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Сейчас подрядчик уже полностью демонтировал имеющиеся системы, на месте работают три бригады.

Работы н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веду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к замен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2094 плиты. Также на объекте в 2024-2025 годах здесь установят аэродромный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 (АРЛК). Важно,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 влияет на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о вне регламентное время работы аэродрома.

Отметим,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Курилах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с учетом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шлый год стал рекордным – обслужили более 100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На Парамушире запустили новую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с 1 сентября между Итурупом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вновь запустят прямой рейс. Кроме того, до 2030 го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закупит еще 33 самолета и 21 вертолет.

В целом КП «Аэропорт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улучшаются условия труда, обно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е фонды, приобретае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техника на все аэродромы и посадочные площадки, персонал регулярно повышает уровень компетенции и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в сфере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аэродром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рыбокомбинате «Островной» на Шикотане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вдво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рыбокомбинат «Островной». Предприятие в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обеспечивает работой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С запуском рыбоконсервного завода откроется еще 800 ваканс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имеет собственный добывающий флот – 20 единиц транспорта, в том числе маломерные суда для промысла ламинарии, кукумарии, гребешка и спизулы.

В рамках инвестпрограммы построен завод малой мощности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Запущено два рыбомучных завод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120 и 350 тонн сырья в сутки. Они выпускают рыбную муку и рыбий жир.

– По жиру мы прошли все три ступени – от технического жира до ветеринарн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ыпускаем уже чистый пищевой. Следующий шаг – протеиновая паста из вытяжки рыбы,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Рыбокомбинат «Островной» Сергей Сухан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едложил запус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кого популярного продукта, как морской коллаген.

В процес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егодня еще один рыбомучный завод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400 тонн сырья в сутки. Уже возведен рыбо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 сейчас там идет внутренний монтаж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ерекрытий. Там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2 млн банок в сутки.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овременный холодильник мощностью 5 тысяч тонн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приятие также обустроило большой рыбный пирс и сделало берегоукрепление шпунтовой стенкой по всему периметру бухты Малокурильская.

– Мы сделали дноуглубление.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имать порядка 200 контейнеров,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 СПГ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строва природным газом. Создаем закрытый терминал.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тройматериалы уже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е.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пункта нам очень не хватало. Запуск терминала даст толчок к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а, – доба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окомбинат вкладывает большие ресурсы и в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Шикотане. Предприятие имеет собственную строительную компанию – ОО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был открыт супермаркет с большим ассортиментом товаров. На прилавках – хлеб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хлажденные дары моря, свежемороженая рыбная продукция, свежие овощи и фрукты.

– Важно, что соблюдается баланс, и бизнес дает отдачу людям. Предлагаю совместно сделать программу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то позволит расселять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предоставлять арендные квартиры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и продавать жилье в рамках льготных ипотечных программ. Скоро число рабочих мест у вас почти удвоится, кто-то приедет с семьями. Людям нуж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ы вам предостави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рыбокомбината ранее уже возвел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трехэтажный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и коттеджный поселок, а для гостей и туристов – гостиницу. Также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пекарня с пиццерией, аптека, храм.

Еще 24 семьи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овременную новостройку

Новую четырехэтажку на 24 квартиры возвели в селе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улице Парковой, 5.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жилье бесплат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Квартиры жителям передали с отделкой «под ключ». В них поклеены обои, уложен линолеум, установлены плиты и сантехн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овоселам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кладываться в ремонт,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нужно только перевезти мебель.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нового дома расположены продуктовый ма-

газин, детский сад и амбулатория.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откроется новый дом культуры.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Дом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озвели в Долинске, селах Сокол, Стародубское, Углезаводс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девять многоэтажных домов: два дома на 80 квартир в Долинске и дома в селах Быков, Сокол, Углезаводск, Покровка, а также 6 домов блокированной постройки в Сосновке и 19 домов в Советском. Всего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рамках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чуть более 1400 долинцев. Однако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ланирует выполнить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год раньше.

– Я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мы выполняем активными темпами. Мы первы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чали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и уже переселили более 15 тысяч граждан. Завершить реализацию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м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Долинск в этом плане идет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и уже к конц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жители района,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до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переедут в новые дома,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величили темп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к пилотный регио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чтобы в сжатые сроки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вопрос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корейшем обеспечении качественным жильем всех нуждающихся. После реализации дей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вступить в новую.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овместно с федер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нее планируется включить дома, признанные аварийными с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С начала года уже 2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расселено – это более 115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улучшили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около 6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осси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2008 года. С 2019 года переселение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Пляж в Охотском первом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цию по федераль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ервый пляж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сертификацию «Синий флаг» и подтвердил соответствие высоким федеральным стандартам. «Охота» войдет в перечень лучших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ляжей России.

Зону отдых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оценила московский эксперт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независимого центра сертификации и экспертизы «ХорекаЭкспертГрупп» Ольга Пасько. 1 июля она вручила мэру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у Ивашову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исвоении первой категории пляжу «Охота».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а, для присвоения «мишленовской звезды» просто поставить на побережье шезлонги и зонтики недостаточно. «Синий пляж» должен обладать развит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быть безопасным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доступным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Он должен быть оснащен пунктам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пасательными вышк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стендами, урнами, раздевалками, душевыми и туалетными кабинками. Все э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яжа «Охота» есть. Помимо этого, здесь размещают бассейн, спортивную и детскую игровую зону. Водную акваторию на пляже обследовали водолазы и подтвердили ее безопасность.

Это будет первы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пляж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имеет высшую категор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яжа заканчиваются последни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делать отдых комфортнее готовя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На побережь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00 метров расположатся торгов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ат гостям мороженое, прохладительные напитки и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 «Синий флаг» является наивысшим стандартом качеств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который по многим критериям превосходит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ритер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поручение –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ляж в Охотском, чтобы посетители находились в комфортных и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ях, и добиться присвоения «Синего флага». Это была амбициозная цель д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 района, но ее удалось достигнуть. Охотское побережье всегда был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живописных, а грамотно созданная соврем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елает его ещ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остров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зоны отдыха в Охотском на этом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бизнеса, в том числе и грантовых средств, на набережной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с видом на море, ресторан, уютные каф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стиле с элементам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и открытой террасой, амфитеатр.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на побережье всесезон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для отдыха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동포연합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시위

"한인 이중징용 피해 감춰... 유네스코 평화 정신 위배"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 중인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6월 28일 밝혔다.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지난 7일 등재와 관련해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라'고 권고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단체인 연합회는 지난 22일 김포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고, 26일에는 파주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권경석 회장은 "일본은 사할린으로 조선인 10만명을 강제 징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시위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 22일부터 전개하고 있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제공]

용했고, 이중에 5만명 이상을 일본으로 이중징용해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같은 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며 "피해자들이 매몰 사고 등으로 죽거나 다쳤고 원폭피해 지역 복구에 동원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죽은 게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문화유산 등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인천, 부산, 양주, 남양주, 원주, 천안, 서천 등 전국 28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들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위에 동참한 이화일 파주사할린동포회 회장은 "강제 노역 후 보상을 못받거나 장애인이 돼 사할린에 돌아오

지 못한 부모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유네스코의 평화·인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 여부는 내달 하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이며 등재 결정은 위원국 전원 동의가 있어야 이뤄지는 게 관례다.

[우리말로 깨닫다]

액막이 타령과 아리랑 고개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액막이 타령은 달마다 일어나는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월령체 노래와는 달리 각 달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일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고, 삼월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다 막아 낸다.'로 노래는 시작합니다. 후렴구라고 해야 할까요, 전렴구라고 해야 할까요? '어허루 액이야, 어허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라는 부분이 가사의 앞뒤에 들어갑니다.

가사는 '오월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 팔월에 막고, 칠월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 귀일에 다 막아낸다.'와 '구월 귀일에 드는 액은 시월 모날에 막고, 시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선달에 다 막아낸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 년 내내 들어온 액을 막아 내고 나서는 다시 '정칠월(1/7), 이팔월(2/8), 삼구월(3/9), 사시월(4/10), 오동지(5/11), 육선달(6/12) 내내 돌아가더라도, 일 년 하고도 열두 달, 잠귀 잠신은 물알로 만대유전을 비웁니다.'로 가락을 바꾸어 마무리합니다. 들어온 액, 즉 잠귀와 잠신은 물 아래(얕)로 다 막아버리고, 길이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흥미로운 것은 액을 막는 시점이 액이 들어오기 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액이 들어온 후에 액을 막고 있어서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즉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는 겁니다. 문맥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액이 안 들어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없고, 살면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않을 도리도 없습니다.

다만, 들어온 액은 더 커지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원하는 노래가 바로 액막이 타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액을 막는 날 중에는 오월 단오, 구월 귀일, 시월 모날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가능하다면 즐거운 축제날이나 제사를 지내는 날에 액을 막아 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구월 귀일은 9월 9일로 중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월 모날은 음력 10월의 말[馬]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윗놀이 '도개겔웃모'의 '모'가 바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에 따라 모날에는 액을 막기 위하여 팔뚝이나 팔죽을 한다고 합니다. 팔의 붉은색은 벽사의 상징입니다.

액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커지는 것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고를 보여줍니다. 일 년 내내 액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액을 끊임없이 막아 냅니다. 그리고 그 액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만대에 걸쳐서 복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액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살면서 다양한 고통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은 막힌 겁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대표 민요 아리랑의 정서와 같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하며 원망도 하고,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나네.'하고 한탄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고통의 아리랑 고개에 머물지 않고,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라는 바람이 바로 고통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픔의 아리랑 고개, 슬픔의 스리랑 고개를 넘어서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괴롭고,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닥치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에게 그런 복은 없습니다. 다만, 더 큰 화가 되지 않고서 잘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 봅니다. '잠귀 잠신은 물알로 만대유전을 비웁니다.'

(재외동포신문)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 맞손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 협력과 국내 입국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준동)과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8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준동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 업무협약은 지난 6.19(수) 이기철청장의 인천보훈병원 방문 계기 국내거주 재

외동포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 청장과 김 병원장은 이날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의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 재외동포의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 러시아·CIS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외 의료 협력, △ 재외동포 중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 발굴* 등 보훈의료 공공성 확대, △ 인천 거주 재외동포 대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사회공헌활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외국 국적 동포의 증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체류 동포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상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보훈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의미.

(재외동포청 제공)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감면

1만원→7천원 인하, 면제 대상도 2세 미만→12세 미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

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

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 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문화마라톤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의 주제는 러시아 고전문화로서 문학, 음악, 미술 분야다. 문화마라톤의 목적은 기술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발적 창작 탐구를 위해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데 있다. 문화마라톤은 12월까지 계속되며, 기획 공식사이트에는 디지털 과제와 영상강의가 게시돼 있고, 경연도 진행하여 참가자들은 알렉산드르 푸쉬킨과 현대성에 관한 특별기획을 가까이 접하게 된다.

〈문화마라톤〉 참가를 위해 올해는 '영화탐색'에서부터 '안텍스 지도'와 '여행'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있다. 문화마라톤은 '안텍스 교육'이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제별 시험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진행되며, 이 시험문제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불명확하게 열거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문화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먼저 등록을 요한다.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ригласили на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рус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6 июн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А. С. Пушкина в рамках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и Яндекс запустили очередной «Культурный марафо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школьники, их родители, учителя и все желающие. В этом году темой стала рус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литература, музыка и живопись. Цель марафона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ника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через призму технологий и вдохновить их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творческие поиски.

Марафон продлится до декабря.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дания, видеолекции и проходить конкурсы. Участникам марафона уже доступен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про А. С. Пушкина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К участию в наполн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марафон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оединятся также разные сервисы «Яндекса», от «Кинопоиска» до «Яндекс Карт» и «Путешествий».

Марафон заверши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м тестом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й подготовит «Яндекс Образование». Тест пройдет в трех вариантах — для младшего, среднего и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Это задание — не на оценку, а на интерес. Чтобы решить его, нужно уметь мыслить логически и замечать неочевидные параллели. Для участия в марафоне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Сахалин, Каторжанская ошол길을 따라 대규모 달리기 경주 개최

7월 20일(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 전설적인 〈제로 킬로미터〉 카토르잔스카야 오솔길을 따라 대규모 마라톤대회가 열린다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정부가 전했다. 대회는 사할린에 첫 정착지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데 2023년과의 중요한 차이는 6km와 11km의 다양한 난코스이다. 참가자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단, 참가를 위한 진단서와 스포츠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달리기 코스는 다양한 난이도를 고려해 초보자는 6km, 숙련된 참가자는 11km에서 경주하게 된다. 결승선까지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체육복과 팔찌를 선물로 증정한다. 참가 등록은 7월 10일까지다.

Массовый забег по Каторжанской тропе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20 июл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ится массовый забег по легендарной Каторжанской тропе «Нулевой километр».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Забег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 к дате основания перв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Важное отличие от 2023 года

— дистанции различной сложности — 6 км и 11 к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бег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при себе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портивную форму и медсправку. Дистан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различную сложность: 6 километров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атлетов и 11 километров - для более опытных.

В конце дистанции добежавшие до конца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призы - футболки и браслет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до 10 июля.

웨르흐네에 호숫가에 빠진 학생, 사할린 여성주민이 구조

6월 2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내 웨르흐네에 호숫가에서 11세-13세 가량의 남학생이 물에 빠져 사할린 여성 주민이 구조했다고 '에호 사할리나'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졌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두 명의 남학생들이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한 학생이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고려하지 못해 그만 물에 빠져들어갔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를 알아챈 여성이 구조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신은 채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학생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구조자인 친구도 학생이 물에서 나오도록 도왔다.

다행히 구조가 잘 되어 구조된 학생은 호숫물을 마시긴 했지만 딱히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Сахалинка спасла тонущего ребенка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В озере Верхн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7 июня женщина спасла тонущего школьника лет 11-13-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Эхо Сахалина».

По рассказу очевидицы, двое мальчиков решили искупаться в водоеме. Однако один из них не рассчитал свои силы и начал тонуть. Тогда женщина, раньше всех понявшая в чем дело, бросилась на помощь прямо в одежду и обуви. Друг-спасатель, который тоже пытался помочь мальчику, вышел из воды сам.

Все завершилось благополучно. Помощь медиков не потребовалась, мальчик отказался от помощи, хоть и успел нахлебаться озерной вод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редактиру**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